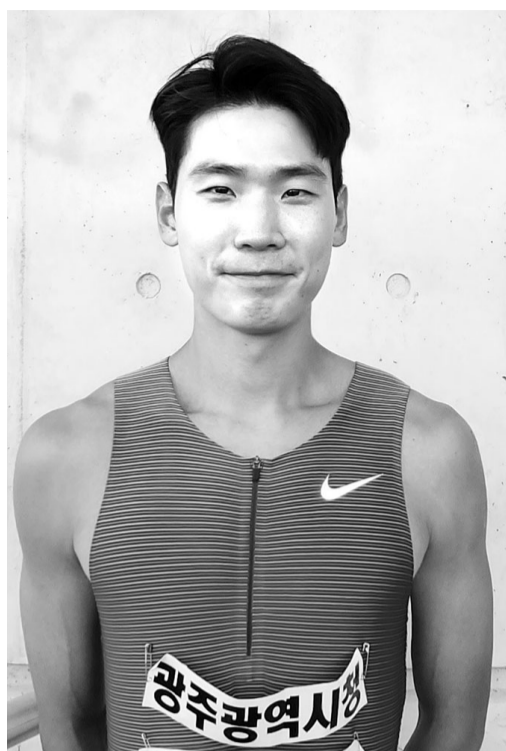


광주시청 고승환 전국실업육상 200m '금 질주'

군 제대 후 지난달 입단... 첫 출전 전국대회에서 우승 장지용 400m 허들 은메달... 광주시청 금 2·은 1 획득

광주시청 육상팀 고승환이 제34회 전국실업대학육상대회 남자 200m에서 금빛 레이스를 펼쳤다. 광주시청 입단 후 첫 금메달이다. 고승환은 지난 8일 충남 서천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200m 결승에서 21초13으로 결승선을 통과,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21초48의 문해진(안양시청), 3위는 21초52의 서민준(서천군청)이 차지했다. 군 제대 후 지난달 16일 광주시청에 입단한 '한국 남자 200m 간판' 고승환은 '광주시청' 유니폼을 입고 첫 출전한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컨디션과 실전 감각을 조절한 고승환은 9월 항저우아시아게임과 10월 전국체육대회에서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광주시청 장지용은 같은날 열린 남자 400m 허들

결승에서 53초53을 기록, 임찬호(정선군청·52초11)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시청 김태호는 전날 남자 100m 결승에서 10초31로 최선재(서천군청·10초47), 김시은(인천시청·10초49)을 따돌리고 우승해 시즌 3번째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김태호는 앞서 지난 3월 2023 Amazing 익산 KTFP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와 6월 나주시 열린 제27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100m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광주시청 육상팀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다.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감독은 "고승환이 우리 팀에 입단해 첫 금메달로 시작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고승환



장지용

스포츠클라이밍 서재현 월드컵 11차 대회 리드 4위 김자인은 결승 진출 실패

한국 여자 스포츠클라이밍 서재현(노스페이스·서울시청)이 2023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월드컵 11차 대회 여자부 리드에서 4위에 올랐다. 서재현은 10일(한국시간) 슬로베니아 코퍼에서 열린 대회 리드 결승에서 38+를 기록해 안야 가른브렛(슬로베니아·완동), 모리아 이(일본·44+), 비타 루칸(슬로베니아·40+)에 이어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예선에서 3위를 차지한 서재현은 준결승에서 34를 기록, 26명 중 공동 3위로 결승에 진출했다. 지난달 7일 세계선수권대회 리드 종목에서 동메달을 따냈던 서재현은 메달 획득을 노렸지만, 결승에 오른 8명 가운데 4위에 랭크돼 시상대에는 오르지 못했다. 함께 출전한 '암벽여제' 김자인은 준결승에서 26+를 작성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 20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광주체육중 근대5종 최지웅 올 시즌 중등부 전관왕 달성



광주체육중 최지웅(가운데)이 지난 9일 강원 인제에서 열린 제1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근대5종경기대회에서 남중부 3종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한 뒤 시상대에 올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근대5종연맹 제공>

제1회 대한체육회장배 우승 올 5번째 전국대회도 제패 '포스트 전용태' 성장 기대

광주체육중 근대5종팀 최지웅(3년)이 제1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근대5종경기대회 남중부 3종 개인전 우승을 차지, 광주 근대5종 사상 처음으로 시즌 중등부 전관왕을 달성했다. 최지웅은 지난 9일 강원 인제에서 열린 이번 대회 남중부 3종 개인전 결승에서 총 914점을 획득, 이현서(서울체중·900점)와 윤태성(898점)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지웅은 수영에서 2분07초10 기록으로 6위에 그쳤으나 레이저런(육상+사격 복합)에서 역주를 펼치며 618점(1위)을 따내 역전 우승을 일궜다. 올시즌 마지막 대회인 대한체육회장배에서 금메달로 장식한 최지웅은 4월 제40회 회장배 전국근대5종 경기대회, 5월 제10회 한국실업근대연맹 회장배,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8월 제3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에 이어 5번째 전국대회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며 올시즌 전관왕을 달성했다. 광주 중등부 근대5종 사상 시즌 전관왕은 최지웅이 처음으로, '한국 근대5종 간판' 전용태(광주시청)의 대를 이을 선수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대 여자농구 3년 연속 챔피언결정전 진출

대학농구 U-리그 4강 PO서 수원대에 연장 혈투 끝 승리

광주대가 2023KUSF 대학농구 U-리그 여자부 경기에서 3년 연속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했다. 광주대 농구팀은 지난 8일 홈코트에서 열린 4강 플레이오프에서 강호 수원대와 연장까지 가는 혈투 끝에 84-82, 2점 차 진땀승을 거두며 결승에 선착했다. 이로써 광주대는 지난 9일 단국대를 49-43으로 잡은 부산대와 대회 우승컵을 놓고 13일 오후 2시 마지막 승부를 벌이게 됐다. 광주대 양유정은 전반에만 혼자서 22점을 몰아넣는 등 이날 팀에서 가장 많은 40분간 코트를 누비며 36득점에 5개의 가로채기를 기록하는 신들린 활약을 펼치며 팀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또 조우(15득점 9도움)와 정채련(11득점 7리바운드)도 공수에서 힘을 보태며 팀의 결승 진출을 도왔다. 광주대는 전반을 47-34로 크게 앞서며 승기를 잡았다. 하지만 후반 3-4쿼터 합계 28득점에 그치는 갑작스런 슛 난조에도 마지막 4쿼터서 수원대 전희



3년 연속 대학농구 U-리그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한 광주대 농구부. <광주대 제공>

교(32득점)에게만 15득점을 헌납하며 승부를 연장으로 돌렸다. 연장에서도 박빙의 접전이 계속된 가운데 종료 47초를 남기고 속공 득점으로 83-82 리드를 잡은 광주대는 이후 조우가 파울로 얻은 자유투 2개 중

1개를 성공하며 84-82로 격차를 벌렸다. 남은 시간은 13초. 다급해진 수원대는 김서연이 던진 회심의 3점슛이 림을 외면했고, 광주대는 남은 시간을 잘 버티며 2점차 신승을 마무리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박지영 생애 첫 메이저대회 정상... 시즌 3승

KLPGA 스타챔피언십 우승

박지영이 생애 첫 메이저대회 정상에 오르며 시즌 3승 고지에 맨 먼저 올랐다. 박지영은 10일 경기도 이천시 블랙스톤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시즌 네 번째 메이저대회 KB금융 스타챔피언십(총상금 12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쳐 4라운드 합계 2언더파 286타로 우승했다. 지난 12월 앞당겨 치른 시즌 개막전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과 지난 7월 에버라랜드-더시에나 퀸즈 크라운에 이어 이번 시즌 3번째 우승이다. 올해 KLPGA투어에서 3승을 거둔 선수는 박

지영이 처음이다. 박지영은 또 데뷔 9년 차에 처음 메이저대회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맛봤다. 이 대회에 앞서 6번 우승한 박지영은 메이저대회 우승이 없었다. 우승 상금 2억1600만원을 받은 박지영은 상금 랭킹 2위(9억2313만원)에 대상 포인트 랭킹 2위로 올라섰다. 평균타수 1위를 지킨 박지영은 상금왕, 대상, 그리고 다승왕 등 개인 타이틀 전 부문에서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박지영은 이 대회에서 유일하게 언더파 스코어를 제출했다. 이예원, 이가영, 김민별이 1오버파 289타로 공동 2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10일 열린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박지영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오픈하이머
- 2관 오픈하이머, 웰리멘탈, 밀수
- 3관 가을입주특가 콘크리트 유토피아
- 4관 일짜일간 친구
- 5관 타겟, 생츠퍼러: 마법의 소원나무
- 6관 잠
- 9관 달짜지근해: 7510
- 7관 씨네커플 잠
- 8관 씨네커플 잠, 밀수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 9. 15-16
광주예술의전당 원형극장
19시 30분

물결

극단 코끼리들이 왔는다
물결

일시 : 2023-09-15(금)-16(토)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원형극장(야외)
문의 : 062-613-8235

Deutsches Radio Philharmonie

2023. 09. 16 17: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

즐거움
문화산책